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찬송가 559장(305)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찬송가 304장(404)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 성경봉독 ||

-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26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서교회



예배 순서

개 식 사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59(305)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4:7-11	다 같 이
말 씬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인 도 자
합심 기도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 이
축 복 의 사	2. 가족과 친지를 바라보며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304(404)	다 같 이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 이

|| 말씀 ||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추석은 한 해의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물질의 풍성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역시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근원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자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추석의 감사는 가진 것을 헤아리는 데서 나아가,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내어줌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도 부모의 헌신과 배우자의 수고, 형제자매간 서로가 참고 견딘 시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친밀해 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1절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반복하기보다 이해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에게 받은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서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

1.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제목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존재나 함께했던 시간, 받은 사랑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편하게 나누어 보세요.
2. 이번 명절에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감사나 사랑의 말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웠어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처럼 짧은 말이라도 서로에게 직접 표현해 보세요.